

보건의료의 개혁과 21세기의 화상진단

동아엑스선기계 기술고문
허준

CT가 등장하면서 화상진단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어 「화상진단 없이는 의학은 존재할 수 없다」고 할 정도까지 되었다. 한편 보건의료시스템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보건의료의 내용은 크게 변화되어 적절한 보건의료방향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고령화와 의료기술이 개혁되면서 증대되는 의료비에 대하여 경제적인 측면에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긴급한 과제에 관해서 보건의료개혁의 필요성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각 의료기관은 보건의료의 내용과 공급의 적절성 그리고 유효성, 의료자체의 경제성에 대해서 검토와 평가를 여러 각도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의료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특히 의료의 유효성이 아직 명확하지 못하여 미확립 상태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이용되고 있는 의료 중에는 과학적인 근거에 의거하여 평가되고 있는 것은 약 20%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제공되고 있는 의료내용의 결과를 보면 격차가 많이 있어 각기 의료에 대한 질은 보증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어 의료에 들어가는 비용은 여러 가지 이득을 희생시키고 있다. 이상과 같은 배려는 하지 않고 의료이 이용되어 왔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건의료를 새롭게 개혁시키기 위해서 보건의료기술을 평가하는 것은 가장 기본으로 화상진단부분은 내과나 외과 등 임상각과 영역에 비해서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번 특강에서는 기술개혁의 측면에서 보건의료기술평가의 필요성과 적절성 및 그 방법에 관해서 화상진단기술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